

# “교구본사 중심 복지행정 필요”

## 조계종 복지재단 설립 5년 한일과 할 일

지난 2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5주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요구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태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불교복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불교계에 사회복지에 대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복지관만 13곳을 수탁받는 등 어린이 집과 청소년회관 등 현재 관리하는 시설만도 70여곳에 이를 정도로 양적 팽창을 통한 불교사회복지 토대를 마련했다. 또 불교복지지원센터를 열고 <불교사회복지지원센터>와 <한국불교사회복지총합>을 펴내는 등 불교사회복지 정보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 개념이 도

입된지 불과 7~8년에 불과하고, 설립 당시 불교계가 복지불모지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교계 복지관계자들은 그간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는 복지의 개념이 '다가가는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변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교구본사중심체계의 전환이다. 이같은 필요성은 교계 복지관계자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미 금오사회복지관 김현연 과장은 “종교복지지원센터가 교구본사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도 ‘관할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을 수탁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 복지관 13곳 수탁 등 70여 시설 관리 '성과'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정서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중심이 아닌 현지 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 복지관계자들 한결같은 견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재단의 불합리한 구조와 전문인력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울 모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해도 종단 결정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개발과 양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별도법인임에도 종단에 예속된 현재의 구조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복지법인 불국토의 박용하 사무국장도 “현재와 같은 구조는 오히려 지방의 복지관련시설에 부응한

더해줄 뿐이다. 복지재단이 불교복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이 96년부터 추진해오던 유아유아원 승가복지문제도 마찬가지다.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 해성스님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스님들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종단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변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복지재단에 없다는 데 있다. 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불자들이 복지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재단도 충분히 공감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인 결정권과 집행권이 없으니 현재로서 실현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종단의 결단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kmwhan@buddhapia.com)

## “남북의 상처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1000일 정진 불교연대’ 출범

### 운영위원장에 성태용교수



입제식은 공동발원문 낭독 및 헌공, 각 단체의 활동계획 발표, 발원 찬탄의 합창, 평화의 합창, 평화의 통일 열기를 모아낼 계획이다.

한편 1000일정진대는 ‘한마음 한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천주교와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불교 사회개혁교단과의 연대활동도 추진중이다.

김재경 기자

21개 통일관련 불교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이하 1000일정진연대)는 3월1일 오후 1시30분 1000일 정진 기도 입제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다.

1000일정진연대는 2월21일 불교바로세우기재단가연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운영위원장에 성태용 건국대 교수(분지 논설위원, 사진)를 선출하고, 입제식을 기해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불자들의 용맹정진의 마당을 펼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월22일 회의실에서 포교논문 공모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율호스님(쌍계사 교무)이 “그릇이론에 의한 정예불자교육”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탄해스님(순천 흥륜사주지)이 “장애인 포교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이흥선씨(강원불교주간)가 “인물선양 불사를 통한 21세기 불교포교방안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은 이번 수상한 논문을 자료집으로 발간돼 각 사찰에 배포, 포교현장에서 사용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율호스님은 “그릇이론은 저마다 그릇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릇이 변화하는 단계를 체계화했다”며 “일반인들과 불자들이 선을 쉽게 실수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수행방법을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대각회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

### 이사회 정관개정 의결...조계종 “행정제재 풀기”로

대각회(이사장 도문)는 2월 21일 서울봉익동 대각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사장 도문, 상무이사 홍교스님 등 11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 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대각회는 정관을 개정, △명칭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로 하고 △목적 조항에 조계종의 종지와 종통을 봉개하고 △임원은 조계종 재적승려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해산사건에 재산은 조계종에 등록된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사찰)에 기증한

다고 규정했다. 대각회는 곧 문화관광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정관 개정과 관련, 홍교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뜻에서 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각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조계종은 대각회 소속 스님들에게 행해졌던 승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발급 및 행사교역원 입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계종에서는 대각회 소속 스님들이 조계종 승려이면서도 사찰은 조

계종단이 아닌 재단법인 대각회에 등록함에 따라 각종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대각회는 1969년 민족독립과 전통불교의 수호를 위해 평생을 보낸 용성스님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동안 용성스님 상가 복원 불사 등을 펼쳐왔다. 98년에는 대각사상연구원을 열어 용성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대각회에는 200여 사찰이 소속돼 있다.

정성운 기자

## “종교NGO 강화할때”

### 이진구박사 ‘포럼’서 주장

종교계의 대사회운동 즉 종교 NGO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구 박사(서울대 강사, 종교학)는 2월21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열린 ‘지구화 시대의 종교와 종교운동’이란 주제로 열린 재가연대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박사는 “한국사회도 점차 탈종교화, 세속화되어 갈 것임에 따라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위상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면서 “환경, 인권, 소득분배, 사회복지 문제 등과 관련한 사회비판 및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NGO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 자민련 이총재 발언 교계인사 초청간담회서

자민련 이한동 총재의 ‘불교보수론’이 교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불교보수론에 대한 교계의 대대적인 반응은 불교를 요모조모로 성격지은 것도 그렇지만 보수주의로 본 것은 바른 불교관이 아니라는 쪽으로 기운다.

이한동 총재는 2월 23일 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종단의 총무원장과 부장급 스님, 신도회 간부들

## “불교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

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자민련에서 이한동 총재, 박철언 부총재(자민련불자회장) 등이,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지성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준광스님, 관음종 총무부장 범명스님과 일승종 보문종 원효종 총화종총무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찬간담회는 이

총재의 인사, 원용종 종정 일공스님의 답사, 원택스님의 건배 제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보수론을 펼쳤다. 이 총재는 “나라를 지키고 세운 것은 보수인데 지금 보수세력은 수구반동, 기독교권, 반민주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불교야말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라고 믿는다. 우리의 보수통합 노력이 공감해달라. 이 길이 한국불교가 선택할 길이 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불교보수론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스님은 “불교를 보수니 진보니 하며 선을 긋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굳이 보수-진보로 나누어 본다면, 정체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격을 지닌 종교”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 현대만평

박구원

방생할때 조심하자...

## 조계종 임시총회 3월14일부터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월21일 오전 의장단, 총무분과위원회, 각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46회 임시중앙총회를 3월 14일부터 5일 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임시총회에서는 △2544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 승인 △총법 제 개정(계단법, 승려법, 지방종정법, 승적제정법, 총림법, 포교법) △총헌 개정 및 종법 제 개정 특위 구성 △동국학원 이사 사퇴 촉구 결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 정성운 기자

## “사미의제 착용해야 기초선원 입방허용”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월 14일 전국선원 운영사항 주지 및 선원장과 임승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사미의제 착용을 권고했다. 교육원은 또 3월 6일 기초선원 불교교 안거사미, 사미니가 사미의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대법원서 기각판결

대법원 민사부(재판장 유지담)는 22일 정화개혁회의 정영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계종총무원은 “정화회는 전부승소하고도 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와 상고를 제기해 전례도 없는 ‘부적절한 소송’을 지속하였으나,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정화회의 모든 기도는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정성운 기자

## 올예산 2억4천여만원 중앙신도회 총회서 확정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2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 4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신형혁신사업 등 올해 사업과 예산인 2억4천4백여만원을 확정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펼칠 신형혁신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5월경 위원회 발족과 함께 신형혁신프로그램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 환경지침서 발간 추진 조계종 사찰환경위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는 19~20일 남화실상사에서 불기 2544년도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으로 사찰생태문화기행 실시 및 환경지침서 발간, 지리산 불교문화 및 생태조사 실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사찰환경보존위원회는 향후 지리산 탐 건설 계획과 관련해 각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공동의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선물용(贈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 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물에 젖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특수지에 원색인쇄로 미려하게 인쇄했다.

경원企劃 TEL.3492-5885 H.P. 017-742-8815 정가:25,000원